

전의 이씨 <절명사>에 나타난 죽음과 烈的 문제

나 정 순*

차 례

- | | |
|----------------------|----------------------|
| 1. 서언 | 4. 이념적 지향과 내면 의식의 갈등 |
| 2. <절명사>에 나타난 표현의 기반 | 5. 결언 |
| 3. 죽음과 열의 양상 | |

1. 서언

<절명사>는 영조조 때 판내용의 아내인 전의 이씨(1723-1748)가 남편을 잃은 애절한 슬픔을 담고 자결할 때 남긴 가사이다. 이 가사는 조선조 여인이 극한 상황에서 죽음에 대하여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여성작으로 열녀 시가의 범주에 속하는 유일한 작품이다.¹⁾

이 작품을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이는 심재완 교수이다. 그는 <절명사> 원문을 제시하고 전의 이씨 행적과 내용, 자료적 가치 등을 논의하면서 국문으로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명도자탄사>가 있으나 <절명사>보다는 좀더 후대인 18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작시 수법도 차이가 있어 본고에서는 <절명사>로 논의의 범위를 좁혔다.

기록된 열부의 작이라는 회소성을 증시하였다. 하지만 열부의 생활이라고 해서 봉건 윤리관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한 인간이 전문하고 훈도 받은 바의 실천에 있어서 순수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²⁾ 이후 홍재휴 교수는 전의 이씨 유문에 수록된 <절명사>의 작자나 가사체 형식을 확인하고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열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한 여인의 처절한 죽음을 다만 조선조 사회가 강조한 충효열사상의 속박에 의한 타율적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은 현대인의 무비판적 평가 의식이라고 전제하고 죽음(자결)은 열의 경지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인간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절명사>에 나타난 죽음을 열의 범주에 넣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을 더욱 강조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죽음의 양상에 대하여 당시의 사회 제도가 강요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³⁾

이상의 논의를 제외하고는 아직 열의 문제와 관련하여 <절명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된 경우는 없었다. 설화나 소설에 비해 고전 시가 장르에서는 열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견하기 어렵고 <절명사>의 작품적 가치 또한 큰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진척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절명사>는 풍부한 비유와 典故를 통해 문학성을 드러내 보일 뿐만 아니라 당대 여성의 내면적 세계와 사회적 이념의 갈등을 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열을 제재로 한 여성작 가사로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절명사>의 형식 구조를 바탕으로 내용 단락을 정리해 보고, 여타 절명류의 작품과 비교해 그 표현 기반의 특이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표현의 기반은 전의 이씨 <절명사>가 지닌 열의 고유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죽음과 열의 양상 및 의미를 밝히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이나 죽음이라 하여 모두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에 내재된 이념과 의식의 갈등 양상을 통해 작품이 지향하는 궁극적 세계를 살펴 볼 때 비로소 <절명사>에 나타난 죽음과 열의 고유성이 무엇인지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심재완, 「전의이씨<절명사>」, 『국어국문학연구』 9집, (청구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5).

3) 홍재휴, 「전의이씨 유문고」, 『국어교육논지』 1집, (대구교육대학 국어국문과, 1973).

2. <절명사>에 나타난 표현의 기법

<절명사>는 모두 63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사 장르로서는 매우 특이한 형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 슬프다 秋風은 어느 곳으로 오나노
-중략-
- 슬프다 景物이여 덩히 나의 命을 재촉호는 때로다
-중략-
- 슬프다 하늘이 亡케호니 또호 엇지 홀고
-중략-
- 슬프다 이 氷여 어디로 조차 스스로 가나다
-중략-
- 슬프다 堂堂한 天倫이 속절업시 긋쳐지고
-중략-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는 ‘슬프다’라는 어휘가 시작되는 곳에서 하나의 의미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개 ‘슬프다’는 시상 전개 전환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사 작품 내에서 이와 같이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시상 전개의 전환을 가져오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남편의 죽음에 당하여 전의 이씨가 지었던 제문에서 그 형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⁴⁾ 위의 형식에 근거하여 전

4) 나정순, 「전의이씨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성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 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여기에서 제문과 <절명사>의 양식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성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슬프다 이것이 진짓 거시냐 진짓 거시 아니냐 쫘이냐 상시냐 내 든음과 내 몸이 오히려 넛듯호터 다시 슬피고 생각호면 또호 내 아닌지다. 나는 어디 잇고 남군은 어디 가시노. 애에 崩성 지똥이여 2올 氷람니 입입호니 모든 신부는 즐겨 도라가는 곳이 잇거늘 슬프다 첩은 녹의홍상을 남군과 엇게를 굴아 존당의 잔을 밭드려 호 변 긋거호삼을 어논 날 다시 불고.’(제문)에서 ‘슬프다’로 시작되는 구절이 각각 이어지면서 하나의 의미 단락을 형성해 나가는 형태는 <절명사>에서도 나타나는데 양자는 내용상 차이가 있더라도 형식상으로는 상관성을 가지고 창작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제문의 처음과 끝부분에 나타나는 부식적인 양식적 어구를 제거해 보면 두 작품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문이 산문체의 장형인데 반해 <절명사>가 단형이기는 하나, <절명사>가 일반적

체적인 <절명사>의 내용 단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을이 되어 자연 경물은 변하는데 나는 더욱 외로울 뿐이다.
2. 나의 명을 재촉하는 때에 창해고주와 같은 운명이 살기를 바라기 어렵다.
3. 하늘이 명절(名節)을 내기 위해 이 몸이 생겼으나 이십 년의 생을 끊고 나면 무탁의 존구가 걱정된다.
4. 소상만족을 향하면서도 친시양가 부모형제와 이별하는 심정은 안타깝다.
5. 오매불망하던 낭군을 만나 소상에서 청명직절을 성취하여 기쁘나 세상과 떨어진 우리 두 넋을 바라보는 가족들은 슬퍼하는구나.

대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절명사>에는 다양한 비유와 典故가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다. 비유의 양상은 은유의 기법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상 정물에 대한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에 대한 비유이다.

슬프다 秋風은 어는 곳으로 오나뇨
 외로운 ㅄ음은 더욱 슬프고 슬프도다
 節序 임의 변하니 丹楓은 錦繡帳을 돌넋고
 누은 垂楊은 어저러운 글사를 드리웠다
 鴛鴦은 서로 고향 곳 수풀을 일혔고
 여안이 남비하니 ㅄ홀 외롭이 아니호고
 후천 망월은 서리발의 짐겨시니
 空糧으로 더브러 비출 비양호는도다

이와 같이 단풍은 ‘금수장을 들렸고’, 원앙은 ‘서로 고향 곳 수풀을 이루었고’, 여안이 ‘남쪽으로 날으니’ 등의 자연물은 모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짝없는 화자의 모습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대비적 장치로 동원되고 있다.

당히 나의 명을 재촉하는 때로다
 遲遲我死여 何以至今고
 有茲父母하니 隔天倫이로다.

인 가사와는 달리 동일한 어구를 되풀이해서 제시하는 반복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두 작품 사이의 상관성을 가늠케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遠父母 離兄弟는 女必從夫어늘
 大滄 長橋 | 中道の 부러지니
 悽悽 橋上 一身이 기우러졌도다.
 창해 외로운 비여 짐대 썩거지니
 저 배 이대로 헝헝여 살 길로 어이 어들고

반면 위와 같이 화자는 '창황고추'로 혹은 '짐대 꺾어진 배'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모두 시적 화자의 막막한 운명의 슬픔이라는 내면적 정서를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고를 사용할 경우 시경을 인용하거나 사기열전의 고사를 가져와서 화자 자신의 죽음을 한할 바 아님을 강조하기도 한다. 위의 예문에서도 제시된 '運運我死여 何而至今고 有慈父母하니 隔天倫이로다. 遠父母 離兄弟는 女必從夫어늘'에서 '遠父母 離兄弟'는 『시경』의 邶風 泉水篇⁵⁾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자가 출가하면 부모와 떨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위나라의 제도와 조선조 사회의 제도가 흡사함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면서 부모와 맺은 친륜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죽음'과 관련한 내용의 전고도 나타나는데 '굴삼려 충혼도 어복을 치왔고/ 태백의 문장충신도 슈증의 원혼이요/오자서 치리도 초슈증의 쓰저시디'라 하여 굴원, 이태백, 오자서의 죽음을 '충'과 관련한 억울한 죽음으로 보면서 이를 화자의 상태와 연결시키기도 한다.

天地 초관시에 이몸을 삼기기는
 명절을 내미로다
 창량의 뭍은 물결이여
 偷生호던 怨을 쾌히 시스리로다
 사라 百年이 훗 풀긋 이실이요
 죽어 전하기는
 천주만세에 민멸치 아일디라
 하늘이 날을 내고
 명절을 불히시미로다

하늘은 자신의 태어남에 '명절'이라는 명분과 절의를 내었다고 하면서 자신

5) 出宿于涉 飲饑于禰 女子有行 遠父母兄弟 問我諸姑 遂及伯姊

의 명절을 충과 같은 반열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삶은 이슬과 같이 순간이나 죽음은 영원히 민멸치 않는 것이므로 창랑의 맑은 물결에 투쟁하더라도 원을 씻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의 근거에 대하여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하나 이 작품에서 전고로 삼고 있는 것은 유향의 『얼녀전』에 맨 처음으로 등장하고 『삼강행실도』의 첫 번째 사례로도 등장하는 순임금의 아내인 아황과 여영의 죽음이다.

소상반죽을 내 어이 혼자갈다
물긋 두듬에 부르지지 우는 나는
친시 양쪽과 부모 형제시니
세 순 크게 웨여 부르느니 괴 누구노

아황과 여영의 죽음에 대한 상황이나 내용이 작품 안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瀟湘班竹』을 찾아간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아황과 여영의 죽음과 유사한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소상을 바라보며 옛정을 못내일너
져근닷 相離는 天地의 惡氣로다
천추 만수 다 어드러 가신고
너 마음과 내 괴운이 옛 첫 내 완연하고
郎君의 낭장언어와
화평홀 얼굴이 의심이 업는지라
낭군이 다시 도라 오실냐 첩이 낭군을 색로나
세상 이별을 못내 슬허 하였더니
일세게 중봉홀 춤 뉘 알니요
소상이 제로소니 우리 양인의 청명직절을 가히 알리로드

특히 마지막 단락에서 남편과의 가상적 만남이 '소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화자의 궁극적 행위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전범은 아황과 여영의 순절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명사>에서 드러나는 전고들은 모두 원텍스트와의 친화관계 형성을 통한 재문맥화를 꾀함으로써 전범성을 통하여 작품의 문학성을 꾀하고

자 했던 고전의 당대적 미학⁶⁾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용된 <절명사>의 전고들은 다른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우리의 눈길을 끈다. 다음 작품은 종종 때 문신이며 정치가였던 충암 김정⁷⁾의 <절명사>인데 한시로 되어 있는 짧은 작품 안에는 <절명사>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절지에 귀양와 외로운 님이 되도다.
 어머니를 두고 가니 천륜도 어겼나니
 이 세상 두고 이 목숨 끊어지나
 구름을 타고 임금 계신 곳에 가리.
 굴원을 따라 높게 소호하면만
 기나친 어둔 밤 언제면 아침이 되리.
 밝은 일편단심은 쑥밭에 파묻히고
 당당한 뜻 중도에 꺾이었으니
 오호라, 천추만세에 내 슬픔 더 하리로다.⁷⁾

자진하면서 남긴 이 한시의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인데 이러한 슬픔은 죽음을 앞에 두고 처했던 화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전의 이씨 <절명사>와 유사한 전고는 '천륜을 어기고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부분과 '굴원'을 예로 들어 자신의 심경을 표출한 부분인데 이러한 전고는 당대에 절명을 앞두고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던 문구들이 짐작케 한다. 특히 굴원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명분화하고 인륜이라는 가치 체계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는 이같은 표현법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도, 충암의 <절명사>에서는 단심이라는 명분을 드러내는데 기여하지만 전의 이씨 <절명사>의 경우에는 '여인의 죽음'과 명절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의 이씨 <절명사>가 일반적인 절명시의 패턴을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열

6) 성기옥, 「한국고전시 해석의 과제와 전망」, 『진단학보』, 85호, (진단학회,1998),137쪽.

7) 양순필, 「충암의 유배 한시고」, 『어문논집』, 제 23집, (고대 국어국문학회,1982), 214쪽.

投絶國兮作孤魂 遺慈母兮隔天倫
 遺斯世兮隕餘命 乘雲氣兮希闕
 從屈原兮高道遙 長夜冥冥兮何時朝
 耿耿丹衷兮埋華萊 堂堂壯志兮中道摧
 嗚呼千秋萬歲兮應我哀 <絶命辭>

의 고유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어 전의 이씨 <절명사>의 의미는 죽음과 열이라는 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될 때 보다 더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3. 죽음과 열의 양상

전통 사회에서 열을 실천했던 절행의 유형은 여러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주로 행위의 결과에서 보자면 살아 있는 열녀와 죽은 열녀로 이분될 수 있는데 <절명사>의 경우 전의 이씨는 죽은 열녀에 속한다. 조선조 여인의 규범적 텍스트로서 열행을 전달하여 보여 주는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살아 있는 열녀도 있으나 열녀는 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열은 죽음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강행실도』 열녀편의 시작은 아황 여영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열녀편의 세 유형 순절, 수절, 헌신 중 수절하여 사는 일부 여인만 제외하면 모두 죽음으로 끝나고, 살아 있는 열녀라도 그들이 진정한 삶을 누린다고 볼 수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삼강행실도』 110편 중에는 자결하거나 피살된 여인이 7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바 이것은 열녀상의 고찰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말해준다.⁸⁾

전의 이씨는 성혼한지 6개월만에 남편이 독질로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재촉하였는바 이러한 김새를 눈치 채고 온 집안이 밤낮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 하였다고 하는데 병석에 누운 친정아버지가 극구 만류하여 말하기를 ‘너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라고 하면서 끝내 호가할 것을 당부하였고 노구 또한 마음을 달래어 목숨을 이어가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매 비통을 억누를 길 없어 그는 수개월간 고개를 들지 아니하였고 또한 언어를 발하지 않는 침잠과 비통 속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병석의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물한모금 입에 대지 않고 슬피하다가 영조 24년(1748) 즉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자결을 하게 된다.⁹⁾ 전의 이씨는 체절할 열

8)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진단학보』, 85호, (진단학회, 1998).

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성적 꺾박을 당해 대응한다던가 하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죽음을 택했다는 것으로 보아 실상 작품 속에서 '명절'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을 뿐 인간적 외로움과 관련해 자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생애와 관련시켜 보자면 어려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도 그의 인간적 외로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전의 이씨가 집안에 후사가 없었고 시부모를 남겨 둔 채 자결을 했다는 점은 분명 효의 측면에서 보자면 배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 설화나 열녀전에 나타난 순절형을 보면¹⁰⁾ 남편이 죽자 바로 따라 죽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가 걱정이 되어 시부모가 친수를 누리고 죽은 후 장례를 치른 후에 자결하는 시집 본위의 사고를 보여 준다든가,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친척집에서 양자를 들여 훌륭하게 키운 다음에 성혼시켜 후사를 잇고 자결하는 가문 의식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류야말로 조선조 사회 규범에서 볼 때 열을 실천한 일반적 순절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의 이씨의 순절이 조선조 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예라는 열의 실천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는 점은 『삼강행실도』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삼강행실도』에 등장하는 <王氏號懶> 같은 이야기들은 순절형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전의 이씨의 죽음과 유사한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왕씨호통>과 같이 시부모를 남겨두고 자결한 이야기가 선조 초간본에는 실려 있었으나 성종 대의 산정본에서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이르러 이러한 순절형이 그렇게 추앙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술적 텍스트로서의 『삼강행실도』에서 인간적 정서를 그린 <왕씨호통>과 같은 이야기가 서서히 삭제된 것을 보건대 그와 유사한 전의 이씨의 죽음은 효의 측면에서 보자면 일면 사회적 규범의 행위에 배반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조선조에서 사회의

9) 광씨본 「전의 이씨 행록」, 이씨본 「전의 이씨 행록」.

10) 이인경, 「구비 열설화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서울대 대학원, 2000).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연대 대학원, 1994).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삼강행실'을 설정한 것 자체가 도덕적 규범의 차원에서 충, 효, 열을 같은 반열의 개념으로 올려놓고 있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보자면, 특히 충과 효, 혹은 열과 효는 서로 배반되는 개념이 아닐 때 진정한 행실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초의 규범은 조선 중기 이후 규범을 제시한 『女四書』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여사서』는 중국에서 보급된 것으로 영조의 명에 의해 이덕무가 번역하고 사회적 교화를 위해 당시에 제시되었던 여성 규범서인데 이를 보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절형에 대해 언급한 「여논어」¹¹⁾를 보면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집을 보전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오히려 이전보다 강화되어 나타날 정도였다. 이와 같이 18세기 사회가 요구한 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의 이씨의 경우 그의 죽음은 실상 열이라는 예의 이념적 실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전의 이씨는 즐겨 효정을 읽었다는 구절이 있는데¹²⁾ '부모에게 욕됨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불효'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일면서도 실현할 수 없었던 것, 즉 시부모를 남겨 두고 자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예라는 이념적 지향의 당위성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개인적 정이라는 내면 세계가 더욱 절박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전의 이씨가 죽음을 택한 것은 개가나 오욕의 위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삼강행실도』의 순절형이나 17,18세기의 열녀형과 관련시켜 보자면 '불경이부'보다는 '一夫從死'의 윤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결하면서 남긴 <절명사>에서도 드러나는 바 가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삼종지도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전의 이씨가 죽음을 택한 것은 가족 윤리보다는 부부의 윤리에 충실히 따르고 있어 자결이라는 행위의 밑바탕에는 인간적인 내적

11) 守節章 第十二

古來賢婦 九烈三貞 名標青史 傳到而今 後生宜學 亦非難行 第一守節 第二清貞
 有女在室 莫出閨庭 有客在戶 莫露聲音 不談私語 莫昏來往 乘燭掌燈 暗中出入
 非女之經 一行有失 百行無成 夫妻結髮 義重千金 若有不幸 中路先傾 三年重服
 守志堅心 保家持業 整頓墳塋 存沒光榮 此編論語 內範義刑 後人依此 女德昭明
 幼年切記 不可臆臆 若依此言 享福無窮

12) 괄씨본 「전의이씨행록」, 이씨본 「전의이씨행록」참조.

절망과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전의 이씨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에 남편 광씨의 집안에서는 전의 이씨의 죽음을 평하되 삼강과 이륜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희유한 일로서 효열을 겸한 본보기를 남기고 간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도내에 각 사림은 그의 죽음을 효열의 근화로 삼고자 하여 그의 旌閭를 上申하였다. 곧 김성원 등의 報狀에 이어 丹成, 草溪, 大邱, 高靈, 昌寧, 星州 등의 각 사림에서 총 400여명이 연서한 통문에 의하여 이 사실이 영문에 報狀되었고 드디어 조정에 승문되어 영조 48년 임진(1772) 2월에 비로소 旌閭를 특명하여 「현풍곽씨십이정려」 중의 1위가 되었고 현풍 광씨의 정려각에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¹³⁾

전의 이씨 죽음에 대해 당대에 정려를 상신했다는 것은 본고에서 제시한 측면과 다른 관점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러 당시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적으로도 붕괴되는 조짐을 보여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권장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영 정조 시대에는 특히 조선 시대 역대 왕조의 방침에 따라 삼강오륜을 근거로 한 유교적 풍속 교화를 위하여 충, 효, 열의 행적이 탁이한 자에게 사족으로부터 천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정표를 하였다. 즉 효자, 충신, 열녀들을 해마다 년말 혹은 式年 정월 말에 예조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 旌門, 復戶, 常職, 貨物 등으로 장려하였던 것이다.¹⁴⁾

당시에 풍속이 무너져 풍속을 심고 절의를 장려하기에 힘쓴 기록들¹⁵⁾로 추측해 보건대 18세기에는 전의 이씨의 죽음과 같은 행위도 실상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적극 장려될만한 본보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씨본 「전의이씨행록」에도 나타나듯이 '당시에 보기 드문 희유한 일로서 효열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는 것에서 남편 광씨의 집안에서 전의 이씨의 죽음에 대해 가문 의식을 바탕으로 열이라는 예의 이념적 실천 행위로 몰고 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13) 광씨본 「전의 이씨행록」.

14) 박주, 「18세기의 정표 정책」, 『국사학논총』 2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15) 『영조실록』 권61, 영조 21년 정월 甲午조.

이러한 죽음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도 엇갈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이 비교적 시대를 선도하던 진보적 문사들에게서 나타났는데 특히 정약용은 남편이 죽는다고 따라 죽는 것은 성격이 협소함이지 열이 아니라고 하면서 편안히 자기 방에서 명을 다 살고 죽었는데 처가 그를 따름은 이것은 자신을 살해한 것 뿐이며, 더욱 자신의 죽음으로 부모나 아이가 의지할 곳을 잃을 경우 이것은 狼淚殘忍하고, 크게 不孝不慈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비판은 여성에게 향한 것이라기보다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것임은 분명한 바, 홀로 살아서 자식을 키운 여성들이 진정한 열녀인지 알아 보지 못하는 사회, 종사한 여인들을 찬양하고 그 가문에 부역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어 여인들의 죽음을 오히려 장려한 조정에 대한 언급은 여인들의 죽음이 반드시 그들의 자의에 의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 주고 여인들이 여기에 희생되지 말기를 바라는 암시가 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⁶⁾

이와 같이 전의 이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당대에 양분된 시각을 보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는 바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의 이씨의 내면에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였는가하는 점이다.

4. 이념적 지향과 내면 의식의 갈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내면의 세계와 이념이 어떻게 갈등하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절명사>에서는 작품의 첫머리부터 외로움이라는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앞서 표현의 기반에서도 보았듯이 '슬프다'의 반복적 열거나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화자의 외로움이다.

저존 몸 춘 물 우허
水風이 冷淡흔디
야월이 창창흔여
월색 처량흔다
수중 옥골헉는

16)이혜순, 앞글, 179-180쪽.

뉘랴 저리 공교로이 지엿논이
 동방 신성은 왕왕이 드무렀고
 계성이 처량흐니
 정히 첫시비가 호노라

이러한 외로움의 정서는 시간적으로도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절명사>가 문학적으로도 내면의 세계를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형상화된 작품의 갈등 양상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大滄 長橋 | 中道の 부러지니/ 悽悽 橋上 一身이 기우러졌도다’라 하여 남편을 ‘대돌보’나 ‘큰 다리’로 비유하는 것은 화자가 남편을 기동처럼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남편이 죽었을 때 지었던 제문17)에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했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성혼한 후 6개월 간의 부부의 정을 시간적 길이로만 잴다면 정이 들기도 전에 헤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 그 무게를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문제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화자가 혼자서 살아야하는 막막함에 이르는 내면적 자탄을 드러낸다는 데에 있다.

앞의 예문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여필종부어늘’이라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발화하면서 결국 ‘대창 장교 중도의 부러지니/ 처처 신상 일신이 기우러졌도다/ 창해 외로운 배여 짐대 썩거지니/ 저 배 이대로 항하여 살 길몰 어이 어들고’라고 이어지는 부분은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내면적 자탄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2단락에서는 화자가 남편을 따라야 하면서도 남편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드러나듯이 ‘여필 종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안타까운 지은이는 이제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 죽은 남편을 따라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서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남편의 죽음’과 ‘나의 삶’이라는 단절의 갈등을

17) ‘일월이 오래매 慙 슬허하며 慙 즐거흐야 昔年 懷抱를 니즈며 또 男妹兄弟 又고 一家和同호니 인생의 즐거오미 기리 이려홀가 호더니 去年 臘晦에 낭군이 기력기울 안아 침을 마즌시니 연세 동갑이요 분호상적호고 부부귀천이 무어시 고후리요. 가인이 일오디 진짓 원앙의 쌍이요, 천정배우라 백년을 동락호리라 호더니’

넘어서 '나의 살아 있음'과 '나의 죽어야 함'이라는 갈등의 단초를 보여 준다.

1,2단락이 이렇게 여필종부라는 봉건적 사회 질서가 요구하는 이념을 보이면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드러내 보인다면 3단락에 이르러서는 '슬프다 하늘이 망כה하니 또한 엇지할고'라고 하여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뜻을 넘어서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하는 운명론적 명분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또한 엇지할고'라 하여 자신이 죽음으로 가야 할 상황은 자신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정해져 있다고 함으로써 천명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습의 벽으로 전환시키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단락에 이르면 1,2 단락의 내면적 자탄은 운명이라는 결정론으로 이어지면서 이념적 외피를 걸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의 죽음을 명분화하기 위해서 화자는 전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총'으로 죽었던 인물들처럼 '명절'이라는 외관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늘이 화자를 내기를 명절 때문이라고 하면서 '죽어 전하기는 민덜치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한 행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단락에서는 그 궁극적 죽음의 목표가 '瀟湘班竹'이라는 아황, 여영의 죽음의 세계와 동일한 것이 된다. 아황과 여영의 죽음은 곧 『삼강행실도』의 첫머리에도 등장하는 것으로서 순절형 여인의 표상으로 조선조 여인들에게는 하나의 이념적 지표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의 이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황 여영의 죽음과 같은 반열의 명분적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죽어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 5단락에서 조차 가상적 합일을 꾀하면서 남편과 함께 '청명직절'을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당하여서조차 명분이 필요했던 당시의 여성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1,2단락에서 인간적 외로움의 정서를 드러냈다면 3,4,5단락에서는 죽음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면서 끊임없이 가족 윤리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3단락의 '무탁하신 존구는 무어슬 의디할고'라든가 4단락의 '창황고 주여 잠깐 머물너문 존구존당의 김흔 은덕과 양매와 일가후정을 다시 가 사례 하자'는 모두 가족에 대한 염려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염려는 남편과의 가상적 합일을 꾀하는 죽음의 상황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郎君이 다시 도라 오실나 침이 낭군을 쓰로냐
 세상 離別을 못내 슬허 하였더니 일세계 중봉홀 줄 뉘 알니요.
 瀟湘이 제로소니 우리 兩人的 淸名直節을 可히 알니로다.
 翩翩호 두 녀시 세상의 迥隔호니
 거리길 집 압 피해 우는 이는 尊與시고
 素帳을 즘음써 哀哭호은 尊堂과 兩妹로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화자가 죽은 자의 시점이 되어 가족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끝맺는 대목에서도 가족 윤리에 대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선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편과의 합일을 피하는 죽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가족이나 삶에 대한 것보다는 남편과 죽음에 대해 더욱 경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화자가 마지막 단락에서 남편과 가상적 합일을 피하기 전에 ‘소상을 바라보며 옛정을 못내 일시 / 저근덧 상리는 천지의 악기로다’라고 하면서 ‘세상 이별을 못내 슬허 하였더니 일세계(일세에)중봉홀줄 뉘 알니요’라고 한 부분은 화자의 내면 세계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이념보다도 남편과의 이별이 가장 핵심적 사안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상적으로 죽음을 통해 남편과의 합일을 피하는 5단락에서는 궁극적으로 화자의 내면적 갈등의 정서가 남편과의 합일이라는 죽음을 통해 극복되고 있어서 앞에서 화자가 명절을 내세웠더라도 중국에는 부부의 질서를 따르기 위한 죽음이 그 목표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조선조 순절형 여인들의 죽음의 양상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하거나 부부의 질서를 위해 죽거나 가족의 질서를 위해 죽거나 사회적 질서를 위해 죽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¹⁸⁾ 그와 관련하여 보자면 전의 이씨의 죽음은 부부의 질서를 위해 죽는 죽음으로 열녀상의 전통적 측면에서 볼 때 남편 사후 지나친 슬픔 속에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하는 부부 질서를 따르는 일련의 유형 속에 그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유형들은 시대나 이념을 초월해 인간적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선조 시가의 한 새로운 면모로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18) 이해순, 앞글.

5. 결론

이상에서 <절명사>에 나타난 열과 죽음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전의 이씨의 행적이나 작품을 보전대 전의 이씨의 죽음은 시집의 강요가 있었거나 가문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열이라는 예를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갈등 양상을 추적해 볼 때 외형상 '명절'이라는 명분을 드러내고 있지만 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 혹은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막막한 인간적 외로움의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전의 이씨가 당대 사회에서 윤리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윤리적 이념만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소상'에서 남편과의 가상적 합일을 꾀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작품 문면의 밑바탕에는 화자에게 남편만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었다는 인간적인 정서의 정서가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여성이 시집 온 가문의 일원이기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개별적 관계로 남으려는 강한 욕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삼종지 의라는 전통 윤리의 순응이라기보다는 변동'¹⁹⁾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향을 보여 준다.

『삼강행실도』 <열녀도>의 발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남편이 죽으면 그 가족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규범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전의 이씨의 죽음을 그린 <절명사>는 예를 구현하기보다는 당시 여성의 인간적 면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 이혜순, 앞글에서 제기한 문제와 본고의 논의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용어를 빌어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참고문헌

『女四西』

『英祖實錄』

『全義李氏行錄』

김옥희, 「조선조사회의 여사서를 중심으로 여교훈서의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1986.

나정순, 「전의이씨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성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박 주, 「18세기의 정표 정책」, 『국사학논총』 2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성기옥, 「한국고전시 해석의 과제와 전망」, 『진단학보』, 85호, 진단학회, 1998.

심재완, 「전의이씨 <절명사>」, 『국어국문학연구』 9집, 청구대학교 국어국
문학, 1966.

양순필, 「충암의 유배 한시고」, 『어문논집』, 제23집, 고대 국어국문학회, 1982.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4.

이인정, 「구비 열설화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진단학보』, 85호, 진단학회, 1998.

홍재휴, 「전의이씨 유문고」, 『국어교육논지』 1집, 대구교육대학 국어국
문과, 1973.

Abstract

Research into 'Death' and 'Virtuous' from the Mrs. Lee's <Jeol Myeong Sa>

Na Jung-Soon

<Jeol Myeong Sa> is a sort of the text of a song, written by Goak's wife Mrs. Lee, and it shows grief of being bereft of her husband. This literature is the only one that was included in virtuous poem's boundary. This indicates you how women of the Choson empire think about death when they are in an extreme situation.

Then is no real research about <Jeol Myeong Sa> in relation to 'virtuous' until now. It is harder to find literatures concerned with 'virtuous' in the classic genre than a tale in a novel. Because of <Jeol Myeong Sa>'s great value. This research should be studied in depth. Moreover, <Jeol Myeong Sa> shows not only its character with abundant comparison and an authentic precedent. But also Choson women's inner-mind, blended with the discord of social ideology. So <Jeol Myeong Sa> could be focused on women's performance, it shows 'chastity' outward. However, actually you will find these emotions in this performance, loving for her husband, yearning and solitude of humanity. This means that this performance shows you Mrs. Lee couldn't get out of ethical restriction at that time. Actually ethical ideology is not the only reason for her death.

Especially in 'Sosang', It implies that she tried to overcome troubles as she contrived imaginary unite with her husband. It means husband is the only friend to turn to.

In this meaning, <Jeol Myeong Sa> is based on women's desire that husband and wife keep their relations individually. So it regards changing of

traditional ethics as adaption.

From a norm viewpoint, we can find literary significance in <Jeol Myeong Sa> because it shows the aspect of women's humanities rather than realizes courtesy.